

은재(殷哉) 신석구 목사와 기독교윤리

유경동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자기 부정의 윤리
2. 못난이
3. 자기 부정
4. 못난이 윤리
5. 자기 부정을 통한 긍정
6. 결론

1. 들어가는 말: 자기 부정의 윤리

윤리란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 인간과 인간 이외의 모든 것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가치와 이것을 토대로 취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질문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 행위의 과정에서 묻게 되는 궁극적인 ‘선’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윤리에 있어서, 특히 선에 대한 물음은 그 근거가 의무적으로 요청되는지, 이미 동기 자체에 내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여야 하는지의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

하여 왔다. 각각 의무론, 목적론, 그리고 상황 윤리에 근거한 책임윤리와 연관하여 기독교윤리는 선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든지, 아니면 인간성에 그 가능성을 두든지, 또는 이 양자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긴장관계에서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다.

물론 기독교 윤리는 전통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으며,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동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개인의 양심과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해 왔다.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전자는 주로 이원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죄성에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인간 이성의 역할에 따른 도덕성의 계몽과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이에 응답하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양자 사이의 적절한 긴장과 조화관계에 놓여있다고 본다. 여기서 윤리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성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¹⁾ 예를들어, 전적인 타락의 경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허락되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반면에 인간은 수동적이 되어 자칫 은총에 대하여 정적주의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면, 역사의 책임과 의무는 인간에게 물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역이 축소된다.

다른 맥락에서 볼 때, 인간과 계시의 만남에서 그 중심이 철저하게 계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시에 조우할 수 있는 인간성에 그 가능성이

1) 필자는 여기에서 변증법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 간의 긴장이라는 뜻으로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변증법이 궁극적으로는 대립을 극복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합리성의 과정이라고 볼 때, 필자는 이와 같은 변증법의 논리를 이 글에서는 부정적으로 취급하며, 신석구 목사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원리를 기독교윤리학의 요소로 채택하고자 한다.

있는지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의 구분점이 생겼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내적으로 자기 긍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할 것인지의 양자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관념론, 즉 '자기 부정' 안에 이미 자기 긍정의 가능성이 내재하여 최후의 절대 정신의 자리에 인간의 정신이 자리 잡는 변증법에 대한 비판은 이미 바르트나 본회퍼와 같은 신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통하여 진지하게 성찰이 되었다. 이들은 '자기 부정'과 긍정의 과정을 통하여 독일 관념론이 취한 절대 정신의 자리에는 독일 제국주의와 게르만 인종주의, '히틀러'라는 독재자, 그리고 그 절대정신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동일화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발하였다. 인간의 '자기 부정'이 긍정으로 돌아올 때 나타난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성의 파괴와 재난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으로 쉽게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부정'의 철저한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타자가 긍정이 되는 윤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요청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고백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죄만 정당화되는 '값싼 은총'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물론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수동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될 때 생기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이 되어서 자기의 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하다고 본다.

죄를 용서함 받아서 자기 긍정에 이르게 될 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용서함 받게 되는 '죄의 생략의 문제'를 보라! 자신의 부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영성과 그 도덕성에 이르는 방법론만이 진리의 과정으로 절대화 되어가는 문제들, 그리고 인간성을 아무리 해집어 본들 결국 자신의 문제 이외에는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의 발견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고를 행위로 옮기는데 필요한 환경과 사회적 에너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식의 신앙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 부정’이 파괴적인 자기 긍정으로 귀착되게 될 것이다.

필자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이 처한 위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기 부정’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으로 너무 쉽게 바뀌는 허위의식과 자기기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부정은 결코 자신의 긍정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긍정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긍정은 자신의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스스로 자신에게 그 긍정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신의 부정은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행위와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부정을 통하여 다시 상면하게 되는 자기의 긍정이 오로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긍정의 자리에 있는 자신은 완전해진 자아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자아이다. 다만 그 자아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여질 수 밖에 없는 자아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 부정’에 이른 자아의 자기 고백은 끝까지 죄인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자신의 긍정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부정’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분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감으로써 제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자기 부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신석구 목사를 통하여 ‘못난이 윤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못난이’란 말을

윤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의 의미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못난이’란 단어가 신석구 목사의 저서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전 생애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필자는 이 단어와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둘째, 신석구 목사의 삶을 통하여 그가 취한 ‘자기 부정’의 윤리적 삶이 자기 긍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 부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제자직의 삶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셋째, 결론으로 이러한 신석구 목사의 삶이 현대 기독교윤리학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못난이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인간의 자기 긍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가능한 ‘신 중심적인 기독교 윤리’가 요청되는 현 시대에서 필자는 신석구 목사의 삶과 그 정신을 통하여 기독교윤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²⁾ 특히 필자는 신석구 목사의 사상

2) ‘신 중심적 윤리’란 말은 제임스 거스타프슨(James Gustafson)은 『신 중심적 관점에서 본 윤리』(*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그는 신학적 윤리의 접근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것은 각각 1)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과 세상, 특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해석, 2) 인간 경험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해석, 즉 인간 공동체의 역사적 삶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정황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자연 참여에 대한 해석, 3) 도덕적 행위자로서 개인과 집합체에 대한 해석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해석, 4) 어떻게 개개인과 집합체들이 도덕적 선택을 하는지와 그들 자신들과 타자들, 나아가 세상 속에서의 다양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 근거 등이다. 그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하나님의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책임적인 윤리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필자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 글에서 ‘신 중심적 윤리’란 뜻을 사용한다. 참고) James Gustafson, *Ethics from a Theocentric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143.

중에 그가 중시한 '못난이'에 대한 신앙적 이해를 차용하여 그의 사상을 기독교 윤리학적인 맥락에서 '못난이 윤리'로 부르고자 한다.³⁾

'못난이'란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지 못할 때 붙이는 말이 '못난이'이다. 신석구 목사는 신앙인이 취하여야 할 자기 고백을 '못난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못난이'라는 단어에는 '자기 부정'에 이르는 윤리학적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못난이'란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불리어진다. 이때 "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가?"라는 점에 의문이 가게 된다. 남들처럼 행동하거나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자신이 도덕적 행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여야 하는 자기 자아에 대한 또 다른 주체성의 요구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는 과정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못난이'란 단어가 자신을 향하게 될 때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상황, 즉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부정적 위치를 파악하는 사회적 준거점을 가지게 된다. 마땅히 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상치를 받게 될 때, 자신을 부정하게 되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열등한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된다.

셋째, '못난이'란 자신이 마땅히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는 낯선 자아를 향하여 부르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상황을 자신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행동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3) 신석구 목사는 '못난이'란 말을 기독교신보를 통하여 청년들을 권면하는 글에서 사용하였다. 참고) "大愚主義者を 要求," 『기독교신보』(1953.3.6)

기독교 윤리학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신석구 목사에게 ‘못난이’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자기표현이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여 버릴 때 부르는 표현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성의 구현이 자기 긍정에 있을 때, 자신을 향하여 바보나 ‘못난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신이 취하여야 할 본래적 모습을 대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못난이’로 다시 다가온 새로운 자아, 즉 ‘못난이’란 자신의 부정적 모습이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인간성의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자아인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못난이’는 또 다른 인격적 주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것은 원래 처음의 자아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자아이며, 그 자아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에 다른 주체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못난이’로 돌아온 낯선 자신은 처음의 자신과는 또 다른 자아이지만, 여기에서는 처음의 출발점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 자아는 이제 각성한 자아이기에, 그 자아가 나아갈 분명한 목적의식이 성립되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세워진다. 따라서 ‘못난이’로 살아가지만, 이제 그 ‘못난이’는 부끄러운 ‘못난이’가 아니라, 남들이 질타하는 ‘못난이’란 소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못난이’인 것이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아의 성립은 소위 자기 긍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부정과 그리고 되돌아온 자신의 부정을 통하여 ‘못난이’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은재 신석구 목사는 기독교인이 ‘못난이’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못난이’는 단지 자신의 부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부끄러운 자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자아로서의 ‘못난이’인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못난이’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은재 신석구 목사의 삶을 통하여 어떻

게 ‘못난이’와 ‘자기 부정’이 기독교 윤리적 요소를 가지게 되는지 그의 『자서전』과 『설교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⁴⁾

3. 자기 부정

신석구 목사가 기독교를 통하여 ‘자기 부정’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전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독교로 귀의하기 전 유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려던 신석구 목사는 당시 유교의 원리에 대한 인간의 표리부동한 행위에 실망하고, 기독교에서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둘째, 기독교를 통하여 신석구 목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간성의 개발에 희망을 두려고 하였던 자신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감명을 받았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 신석구 목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회개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위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셋째, 신석구 목사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면서도, 그 변화는 인격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믿음만이 강조되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즉, 지속적인 ‘자기 부정’을 체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넷째, 이러한 ‘자기 부정’은 그의 내면적인 신앙의 변화에 멈추지 아니

4) 신석구 목사의 『자서전』과 『설교집』의 원문은 고전이기 때문에 인용할 때 따로 출판사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원본 복사본 형식 그대로를 인용하였다. 또한 신석구 목사에 대한 이 글은 본인이 ‘교회목회윤리문제연구소’를 통하여 2009년 가을에 발표한 미출판 형식의 글을 본 논문에 맞게 다시 정리하여 옮긴다.

하고, 자신의 삶 전체에 걸쳐 끝까지 ‘못난이’임을 인정하게 된다.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절박한 운명 앞에서 자신을 독립운동을 위한 재물로 드러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부정’은 결국 75세 고령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였던 신석구 목사의 삶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기독교의 가능성

본래 신석구 목사는 유교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다.⁵⁾ 신석구 목사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사람 됨’의 기본적 생각은 유교를 통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교의 덕목을 아무리 성취하려고 하여도 그는 참다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다고 슬회하고 있다.

신석구 목사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된 이유는 그가 평생을 살아온 유교의 가르침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유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기독교에서는 왜 가능한지, 그 도리를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석구 목사의 유교에 대한 주요 비판은 이 유교 또한 하나의 종교로서 그 의의를 인정하지만, 문제는 유교인들 중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데에 있었다.

유교(儒敎)에서 사람이 되게 못하난 것을 예수교(敎)에서 사람되게 하는

5) “나는 어려서부터 옳은 사람 되라난 말삼이 귀에 저저서 항상 옳은 사람 되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십삼세(十三歲) 시(時)에 비로소 소학(小學)을 배호매 참 사람 되는 책(冊)이라 생각(生覺)하고 삼동(三冬)을 꼭 꿇좌(跪坐)하여 읽었다. 그러나 동류(同類)가 무(無)함으로 소학(小學)을 다 읽은 후(後)에는 꿇좌(跪坐)하기도 폐(廢)하였다.” 신석구 목사, 『자서전』, 11-12.

무삼 원리(原理)가 있는 것이다. 어느 교(敎)를 막론(莫論)하고 사람되게 하는 것이 참 교(敎)가 아닌가. 작금 공자(孔子)가 계셔서 자기(自己)가 아모리 가라쳐도 아니 되는 사람이 다른 선생(先生)에게 가서 사람이 된다면 즐겨서 그리로 보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선생에게로 간다고 시기(猜忌)를 한다면 공자가 아닐 것이다. 나는 무삼 서광(曙光)이 심중(心中)에 떠 오르는 [짓] 같이 새로운 결심(決心)을 하였다. 잊지하여야 유교(儒敎)에서 사람되기 못한 것을 예수교(敎)에서 하는 이 도리(道理)를 즉 알아 보아야겠다.⁶⁾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죄인이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자신의 믿는 대로 행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야 말로 진정한 실천적 행위의 종교라고 신석구 목사는 평가하였다.⁷⁾

유교(儒敎)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듯고 보고 배호고 가라치난 바가 다 그 글이라도 글을 배혼자 천인중(千人中) 일인(一人)의 실행자(實行者)를 차자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수교로 말하면 무식자(無識者) 하천배(下賤輩) 주색잡기(酒色雜技) 부랑자(浮浪者) 사람될 희망(希望)이 없다 하는 자(者)라도 입교(入敎)한 지 불과(不過) 기년(幾年) 혹(或) 기월(幾月)이면 아조 새 사람이 되니 무삼 일이나.

신석구 목사는 항상 참 사람이 되는 것,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 있었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유교의 책들을 통하여 스스로 그러한 참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한 친구를 통하여 자신에게 과연 아무런 죄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된 신석구 목사는 곧 자신에게서 약 50여 개의 죄목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즉 그는 이성적으로는 유교에 대하여 그 한계점을 알고 있었지만, 기독교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자기 부정’에 이르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6) 위의 책, 36-37.

7) 신석구 목사, 『자서전』, 35.

것이다.

하로는 황혼(黃昏)시(時)에 석반(夕飯)을 맞이고 상대(相對)하여 수작(酬酌)하다가, 그 친구(親舊)가 말하기를, ‘자네가 만일 주(主)를 얹어 믿으려거든 죄(罪)가 없는가 생각(生覺)하여 보게 예수를 믿으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罪)를 사(赦)함 받으란 말이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달로 이 세상(世上)에 오서, 우리 죄(罪)를 위(爲)하여 십자가(十字架)에 도라가심으로’ 이 만치 말을 낚는다. 난 그 말을 드를 때 마암이 뜨끔하였다. 아모 말도 아니 하고 앉았으니까 그 친구(親舊)는 다시 말하기를, ‘웨 대답(對答)을 아니하나.’ 내가 대답(對答)하기를, ‘자네가 나더러 죄(罪)가 없나 하고 무렸으니 죄(罪)가 있고 없음을 생각(生覺)한 후(後)에 대답(對答)하겠네.’ 하고 그 자리에 앉어서 두 손을 들고 생각(生覺)나는 대로 죄(罪)를 세기 시작(始作) 하난대 그해 곳 삼십삼(三十三)세(歲)부터 꺾꾸로 헤여 올라가 칠세(七歲)시(時)까지 오십(五十)여(餘)가지 죄목(罪目)을 손가락으로 꼽었다.⁸⁾

유교에 대한 실망 후, 신석구 목사는 기독교를 통하여 ‘진정한 사람됨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과 성화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별히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철저히 ‘회개’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독교윤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3-2. 회개를 통한 자기 부정

신석구 목사는 ‘회개의 조건’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행위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인 죄’이다. 현대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염두에 둘 때, 신석구 목사가 죄의 문제를 ‘행위’의 차원에서 먼저 중요시 한 것은 매우 의미

8) 위의 책, 28-29.

가 있다고 본다. 그는 먼저 ‘행위의 죄’는 그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작고 사소한 죄만 고백하고, 크고 부끄러운 죄는 감추어 두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아닌 것이다.

회개(悔改)의 조건(條件)은 두 가지로서 (일)—은 행위(行爲)의 죄(罪)인 대 근자(近者)에 보통(普通) 교인(交印)들의 회개(悔改)함을 보면 경(經)에 기록한 바 갈따귀는 걸너 먹고 약대는 통으로 삼킨다는 말삼과 같이 적은 죄(罪)는 회개(悔改)하고 큰 죄(罪)는 숨겨두고 지나는 일이 많음이다. 예를 들면 주초(酒草)나 도박(賭博) 같은 것을 끊으면 더 회개(悔改)할 것 없이 다 된 줄노 생각합니다. 불신자(不信者)에 비(比)하면 그것도 무던한 줄 압니다. 혹 신자(信者)중(中) 그런 것도 끊어 못하여 남에게 비난(非難) 받는 것을 드를 때에는 심(甚)히 통탄(痛嘆)합니다. 그럼으로 그런 악(惡)한 것은 우리 중(中)에서 그 모양이라도 바려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만은 만족(滿足)한 회개(悔改)라고 할 수 없읍니다. 도덕(道德)상(上)으로 보아서 가정(家丁)에 대(對)하여 남편된 이가 그 안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안해된 이가 그 남편을 순종(順從)치 아니하여 자녀(子女)된 이가 부모(父母)를 공경(恭敬)치 아니하며 부모(父母)된 이가 자녀(子女)를 법도(法度)로 교양(教養)치 아니하며 형제(兄弟) 간(間)에 불목(不睦)하여 남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나 사회(社會)에 대(對)하여 사리사욕(私利私慾)만 도모(圖謀)함으로 부정당(不正當)한 생업(生業)을 하거나 폭리(暴利)를 취(取)하여 남에게 해독(害毒)을 끼치는 것 같은 것을 철저히 회개(悔改)할 것이오 그뿐 아니라 재산(財産)이나 명예(名譽)나 생명(生命)에까지 손해(損害)될 것이라도 죄(罪)인줄 알면 회개(悔改)하여야 할 것이올시다.⁹⁾

위에서도 신석구 목사가 지적하듯이, 죄의 회개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수반하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회개는 양심의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하여 죄의 책임을 하나님의 은총에 돌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인 동시에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9) 신석구 목사, “悔改,” 『설교집(說教集)』, 6.

행동하는 것이다.

회개가 개인의 내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사회 안에서 각성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은, 회개는 개인의 성화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성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 공판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원하셨다. 예수에게 있어서 회개란 개인의 잘못으로 파괴된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¹⁰⁾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함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석구 목사가 지적하는 회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이에 응답하는 인간의 고백과 회개가 삶의 영역에 까지 미치는 온전한 회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¹¹⁾

신석구 목사가 지적하는 두 번째 죄는 심리적인 죄이다. 그는 인간의 죄가 행위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과 연관된 내면적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심리적 죄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로서, 특별히 남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는 것처럼,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죄의 소리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만 깨달음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의

10) 필자는 ‘부자청년의 비유’(마19:16-30; 막 10:17-31; 눅 18:18-30)와 ‘레위의 따름’(마 9:9-17; 눅 5:27-39; 막 2:13-22),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눅 19:1-10)과 같은데서 나타난 책임적 윤리가 바로 회개를 통한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이 책임적인 실천을 통한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회복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1) 필자는 한국의 개신교 역사 초기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회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였다. 특히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에 나타난 성령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나타난 회개는 고백과 아울러 삶의 변화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운동이었다. 참고) 유경동, 『영성과 기독교윤리』(프리칭 아카데미, 2009)

‘죄’를 철저히 고발하는 ‘자기 부정’은 사회적인 비난을 두려워함으로 유발된 회개를 넘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二)는 심리(心理)의 죄(罪)을 시다. 세상(世上) 사람들은 외양(外樣)에 나타난 것만 죄(罪)로 알지만은 심리(心理)의 죄(罪)가 진실(眞實)노 죄(罪)의 근본(根本)이 시다. 그런고(故)로 예수 말삼하기를 형제(兄弟)를 노(怒)하난 것이 살인죄(殺人罪)요 음욕(淫慾)을 품는 것이 간음죄(姦淫罪)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심중(心中)에 여러 가지 죄(罪)가 있난대 총괄(總括)하면 세 가지 시다. 곳 더러운 것과 악독(惡毒)한 것과 거짓인데 이것을 성경(聖經)으로 인증(引證)하면 곳 육신(肉身)의 정욕(情欲)과 안목(眼目)의 정욕(情欲)과 이생의 자랑이 시다. 곳 해와가 마귀(魔鬼)에게 유혹(誘惑)되어 범죄(犯罪)할 때 받은 마음인데(‘먹음직한 것’은 육신(肉身)의 정욕(情欲), ‘눈에 불만한 것’은 안목(眼目)의 정욕(情欲), ‘지혜를 얻을만치 탐스러운’은 이생의 자랑) 이 세상(世上) 모든 사람의 허다한 죄(罪)가 다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좇아 나는 것이 시다. 그런즉 진정(眞正)한 회개(悔改)는 곳 이 죄악(罪惡)의 성질(性質)을 죽이는 것이 시다. 그런고로 사도 바울이 말삼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十字架)에 못박었나니 곳 정(情)과 욕심(慾心)까지 하였다 하였고 또 말삼하기를 우리 옛 몸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十字架)에 못박어 죄(罪)의 몸을 멸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참 회개(悔改) 시다.¹²⁾

이와 같은 심리적인 죄의 특징은 인간의 양심마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교에 그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에 귀의함으로써 신석구 목사는 비로소 ‘자기 부정’의 과정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안과 밖의 인간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모든 인간적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서 자신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¹³⁾

12) 위의 책, 8-9.

13) 참고) “하나님의 신(神)으로 지으심을 받기 전(前)에 우리의 할 바가 있으니 곧

신석구 목사가 온전한 ‘자기 부정’에 이르게 된 데에는 처음에는 유교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해답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구하려는 ‘인간적 가능성’에 두지 않았다. 그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신앙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의 죄로부터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대개(大概) 여차(如此)한 죄(罪)를 탈출(脫出)하여야 능(能)히 자유(自由)로운 주(主)의 정병(精兵)이 되어 유력(有力)히 주(主)의 사역(使役)을 할 것이온대 우리가 여차(如此)한 죄(罪)를 자각(自覺)할지라도 자탈(自脫)할 능력(能力)은 무(無)함으로 오호라 아(我)는 고로(苦勞)온 인(人)이라고 부르지질수 밧게 무(無)합니다. 연(然)이나 탈출(脫出)할 도리(道理)가 무(無)한 것은 아니올시다. 경(經)에 말삼하시기를 주(主)의 신(神)이 계신 곳에서 자유(自由)함이 있다 하셧스니 력(力)으로도 못하고 능(能)으로도 못하며 상제(上帝)의 성신(聖神)으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誰)던지 진실(眞實)노 자기(自己)가 여차(如此)한 죄(罪)에 속박(束縛)된 줄 통각(痛覺)하면 성신(聖神)의 은혜(恩惠)를 간절(懇切)히 구(求)하여 차등죄(此等罪)에서 완전(完全)히 탈출(脫出)하여야 할 줄이지(知)하겠습니까.¹⁴⁾

철저한 ‘자기 부정’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 받을 수

회개(悔改)이온대 회개(悔改)라 함은 다만 표면적(表面的) 회개(悔改)를 의미(意味)함이 아니올시다. 근자(近者) 그리스도인중(人中)에 표면적(表面的) 회개(悔改) 즉(卽) 주색잡기(酒色雜技) 등(等)을 거절(拒絶)한 이는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이는 세례(洗禮)도 받고 직분(職分)도 맡아 남에게 독실(篤實)한 신자(信者)라는 칭호(稱號)까지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이 참 회개(悔改)가 아니올시다. 이왕(已往)에 회개(悔改)하는 제목하(題目下)에서 임의 말삼하였거니와 죄악(罪惡)의 근본(根本) 즉(卽) 마음속에 허다(許多)한 악념(惡念)을 회개(悔改)하는 것이 참 회개(悔改)을시다.” 신석구 목사, “重生,” 『설교집(說教集)』, 37.

14) 신석구 목사, “教役者의 必要한 것,” 『기독신보』, (1926.8.25)

없다. 아무리 이 세상의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자책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 없이 행동의 선함만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¹⁵⁾ 철저한 '자기 부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다.

신석구 목사는 우리의 죄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공무사'(至公無私)라 표현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심판하는 동시에 죄인을 구하려는 무한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은 신석구 목사에게 더없는 축복이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었더케 아등(我等)의 죄(罪)를 사(赦)하여 주느노 하는데 대(對)하여 논(論)컨대 상제(上帝)의 지공(至公)하심에(至公至愛)하심을 이지(知)할지니 상제(上帝)의 지공(至公)하심으로 언(言)하면 일반(一般) 죄인(罪人)을 일인(一人)도 용서(容恕)치 아니하시고 기행위(其行爲)대로 형벌(刑罰)하실 것이오 상제(上帝)의 지애(至愛)하심으로 말하면 일인(一人)도 멸망(滅亡)치 아니시기를 원(願)하시니 하여(何如)케 하여 차이자(此二者)를 완전(完全)히 할 수 유(有)하리오. 고(故)로 구약시대(舊約時代)에 고양(羔羊)으로 속죄제(贖罪祭)를 헌(獻)하였으나 차(此)는 다만 죄(罪)의 의당(宜當)히 유(有)할 것을 각(覺)케함이오 장차(將次) 래(來)하실 예수의 예표(豫表)이라. 양(羊)이 었지 인(人)의 죄(罪)를 대가(代贖)할 수 유(有)하리오, 인(人)의 죄(罪)를 대신(代身) 담당(擔當)하라면 부득불(不

15) 참고 “연즉(然則) 여허(如許)한 성인(聖人)도 상제(上帝)의 전(前)에는 흠결(欠缺)이 무(無)타 못하려든 하황(何況)범상(凡常)한 인품(人品)으로 수(誰)가 무죄(無罪)타하리오. 고(故)로 보통(普通)으로 항용(恒用)하는 언(言)은 인(人)마다 시(詩)가 유(有)하다 하고 간혹(間或) 언(言)하기를 아(我)는 죄(罪)가 무(無)타 하는 자(者) 유(有)하나 기인(其人)의 행위(行爲)를 고찰(考察)하면 반(反)히 죄(罪)가 태다(太多)함으로 양심(良心)이 부패(腐敗)하여 악(惡)으로 선(善)을 삼고 치욕(恥辱)으로 영광(榮光)을 삼는 연고(緣故)오 진실(眞實)노 양심(良心)에 자책(自責)할 죄(罪)가 무(無)함은 불시(不是)라. 연즉(然則) 불신(不信)할지라도 선(善)키만 하면 관계(關係)치 안타하는 언(言)은 무효(無效)에 귀(歸)하리라도.” 신석구 목사, “信으로 得救하는 道理를 論함,” 『신학세계』(1917.11), 160-161.

得(不)인(人)이라야 하겠고 인중(人中)에도 과연(果然) 담당(擔當)할만한 자격(姿格)이 유(有)하여야 하겠는데 예수 외(外)에는 생민(生民)이 유(有)한 이래(以來)로 여차(如此)한 자격(姿格)이 유(有)한 자(者) 일인(一人)도 무하도다. 고(故)로 세례(洗禮) 약한(約翰)이 예수를 지목(指目)하야 알(曰) 세상(世上) 죄(罪)를 부(負)하고 거(去)하는 상제(上帝)의 고양(羔羊)을 견(見)하라 하였도다.¹⁶⁾

유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의한 기독교를 통하여 신석구 목사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중시하였던 자기애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자기 부정’이 중생의 체험 이후에도 끝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분명하게 사물이 보이듯이, 자신의 부정은 더욱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로 나아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총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발전하였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죽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3-3. 중생의 체험과 자기 부정

신석구 목사는 회개를 통한 철저한 ‘자기 부정’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重生)을 경험하게 된다.¹⁷⁾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중생의 체험을 하였지

16) 신석구 목사, “信으로 得救하는 道理를 論함,” 『신학세계』(1917.11), 164-165.

17) 신석구 목사, “重生,” 『설교집(說教集)』36-37. “중생(重生)이 사람의 작심(作心)으로나 수양(修養)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恩惠)인고로 예수 말삼하시기를 물과 성신(聖神)으로 난다 하셨고(요 3:5) 사도 요한이 말삼하기를 혈기(血氣)로 난 것도 아니오 정욕(情欲)으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오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하였으며(요 1:13) 사도 바울이 말삼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다 하였나이다.”

만, 여전히 신석구 목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심지어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 너무 옹졸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까지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제한적 능력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솔회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신석구 목사의 고백은 기독교 윤리학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서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기 부정’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석구목사는 ‘자기 부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긍정이 되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며, 설령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악 된 인간이 어느 한 순간에 거룩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자기 부정’의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신앙의 과정을 신석구 목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적 행위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 죄 사함과 용서를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 선(善)하기만 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¹⁸⁾ 신석구 목사는 이와 같은 깨달음에 다다르게 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셔서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신석구 목사에게 중생의 체험은 계속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그 부정을 통하여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지속적인 성화의

18) 신석구 목사, “信으로 得救하는 道理를 論함,” 『신학세계』(1917.11), 161-163. “연즉(然則) 불신(不信) 홀지라도 선(善)키만 하면 관계(關係)치 안타흐는 언(言)은 무교(無敎)에 귀(歸)호리로다 또 이왕(已往)에 불의(不義)호 옛슬지라도 개과천선(改過遷善) 관계치 안타흐나 인(人)이 만일(萬一) 죄(罪)를 범(犯)호면 용서(容恕)호고 아니혹은 자기(自己)에게 권한(權限)이 무(無)호니 엇지 개과천선(改過遷善)호므로 관계(關係)치 안트하리오.”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체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각성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고백은 바로 ‘자기 부정’을 통하여 변화되는 신석구 목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赦)하여 주소서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 눈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는 내머리에 떨어지던 듯하여 나는 곳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린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북받쳐 오르던 죄(罪)뭉치는 구름 헤어지듯 안개 사라지듯 아조 없어지고 말노 형용(形容)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充滿)하여 넘쳤다. 곳 내려나며 목소리를 다하여 내 주의 도(道) 침 받은 날 참기분 날이 아닌가 내 기쁨 맘 못이겨서 온 세상(世上)에 전(傳)하노라 하고 웨쳤다.¹⁹⁾

신석구 목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여전히 중생의 체험 이후에도 처음의 ‘자기 부정’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 신석구 목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회적 은총으로 그의 삶을 완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신석구 목사는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성공은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자기의 야망을 부정하는데 이르렀다. 즉, 그에게 있어서 목회는 자신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자신이 목회자로서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을 더 중요시 하였으며, 또한 그 작은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의 과정은 신석구 목사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타자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게 하며, 목회자 본연의 임무인 전도에

19) 위의 책, 54-55.

앞장서게 되는 길로 그를 인도했던 것이다.

나는 성질(性質)이 웅졸하여 무슨 크고 원대(遠大)한 포부(抱負)를 가지고 대사업(大事業)을 성취(成就)함으로 구국(救國)의 노선(路線)에 설 수 없으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傳道)하여 잃어버린 국민(國民)을 찾음으로 나의 의무(義務)를 다할 수 있다 하여 믿기로 작정(作定)하던 날 전도(傳道)하기로도 작정(作定)하였다.²⁰⁾

이와 같이 신석구 목사는 회개와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구하였으며,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목회자의 도리를 먼저 구하였다. 결국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오히려 ‘못난이’의 삶을 강조하며,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이다.

4. 못난이 윤리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회의 과정 중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자신에게 던지는 타인의 비난을 받아들여 여전히 ‘자기 부정’의 입장을 취하여 노력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신석구 목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교만하다고 하는 소리에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²¹⁾

20) 참고 “나는 성질(性質)이 웅졸하여 무슨 크고 원대(遠大)한 포부(抱負)를 가지고 대사업(大事業)을 성취(成就)함으로 구국(救國)의 노선(路線)에 설 수 없으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傳道)하여 잃어버린 국민(國民)을 찾음으로 나의 의무(義務)를 다할 수 있다 하여 믿기로 작정(作定)하던 날 전도(傳道)하기로도 작정(作定)하였다.” 신석구 목사, 『자서전』, 38.

신석구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미련하고 둔하여 죄도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이여, 나는 미련하고 둔하여 죄도 깨닫지 못하오니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²¹⁾라고 자신을 끊임 없이 부정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서 드러나는 끊임없는 죄에 대한 의식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던 것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석구 목사는 ‘자기 부정’에 이르는 과정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자기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온전하다고 여겨야 할 그 때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여 버리는 것이다. 즉 자신을 ‘못난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못난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자기 부정’을 전제하고 있다. 즉 ‘자기 부정’이라는 신앙을 통하여 자신을 ‘못난이’로 인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단지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도(道)로써 행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감화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

21) “나는 홀노 안저 웨 남이 나더러 교만(驕慢)하다고 하나 하고 반성(反省)하여본 즉 과연(果然) 교만(驕慢)함을 깨다랸다. 속으로 교만(驕慢)하여 교만(驕慢)하지 아니한 외식(外飾)한 것을 깨다랸다. 한 가지 두 가지 깨닷기를 시작(始作)하니 심중(心中)에 가득한 것이 죄악(罪惡)임을 깨다랸다. 내 육체(肉體)중(中)에 선(善)한 것이 하나도 거(居)하지 아니함을 깨다랸다. 이 죄악(罪惡)이 내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신령(神靈)한 이치(理致)를 알 수가 없음을 깨다랸다.” 위의 책, 52-53.

22) 신석구 목사, 『자서전』, 52.

물을 감화시킬 수 있다.

경(經)에 갈오대 태초(太初)에 도(道)가 유(有)하니 도(道)로 만물(萬物)이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물건(物件)이 도(道)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하였으니 창조자(創造者) 도로혀 피조자(彼造者)의 감화(感化)를 받았을까요. 우르호부터 오신 이는 만물(萬物) 위에 계시다 하였스니 만물(萬物) 위에 계신 이가 도로혀 만물(萬物)의 감화(感化)를 받을 수 있을까요.²³⁾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석구 말하는 ‘못난이’로서의 인정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청년’(青年)을 정의하면서, 이들은 ‘못난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청년이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며 활발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나이이다. 어쩌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로 극대화 할 수 있는 때이며, 인간성의 구현을 위하여 최대로 노력하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희망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는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못난이’로 자인(自認)’하라고 강조한다. 청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지혜나 재능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더 크고 위대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못난이로 자인(自認)하는 청년(青年)이다…(중략)…우리는 마땅히 스스로 못난 것을 자인(自認)하여 여간한 지혜(智慧)와 재능(才能)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손 가운데에 온전히 자기를 마끼어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榮光) 가운데에 파무쳐버리고 저에겐 하나님의 영광(榮光)만 나타내난 청년(青年)들이 되기를 바란다.²⁴⁾

23) 신석구 목사, “예수와 自然에 대한 반문,” 『기독교신보』(1932.8.17)

24) 신석구 목사, “大愚主義者를 要求,” 『기독교신보』(1953.3.6)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못난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못난이’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못난이’임을 자인하여야 한다. 허영심(虛榮心), 이기심(利己心), 자존심(自尊心)에 사로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십자가의 삶, 즉 희생적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의 시대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희망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중’이 되는 ‘못난이’가 되라고 강조한다.

사람에게 대하여 못난이로 자인(自認)하는 청년(靑年)들이다 … (중략)
 … 진실(眞實)로 허영심(虛榮心), 이기심(利己心), 자존심(自尊心)을 가지고 남의 섬김을 받으려는 잘난 자(者)들이 되지 말고 겸허(謙虛)하고 온공(溫恭)한 심장(心腸)과 태도(態度)로 남을 봉사(奉仕)하는 중의 구실을 하는 못난이가 되기를 바란다.²⁵⁾

이와 같은 ‘못난이’로서의 신석구 목사의 삶은 철저하게 그의 삶과 목회를 통하여 ‘자기 부정’으로 지속된다. 자신의 부정은 단지 내적인 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반복되는 경제적인 궁핍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세상의 한 가운데서 한 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부정’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갔다. 즉 ‘못난이’의 삶을 자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목회를 통하여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의 문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경제적 궁핍과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경제적 문제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피신다는 사실이었다.

25) 위의 글, (1953.3.6)

내가 만일(萬一) 내가 쓰기에 합당(合當)한 자(者)가 되었는데 부채(負債)로 인(因)하여 못쓰게 될 것 같으면 빚을 갚아 줄 것이요, 부채(負債)가 있을지라도 관계(關係)가 없을 것이면 그대로 쓸 터이니 너는 부채(負債)로 인(因)하여 기도(祈禱)하지 말고 나의 쓰기에 합당(合當)한 자(者) 되기를 위(爲)하여 기도(祈禱)하여라.²⁶⁾

그는 목회 초기엔 약 50원 가량의 부채로 인해, 전도사로 파송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²⁷⁾ 그러나 그는 곧 깨달기를, 목회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으로는 전도사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기를 소망했다.²⁸⁾ 신석구 목사는 목회 내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가 네게 좋은 집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주었다”²⁹⁾는 깨달음을 통하여 청빈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이와 같은 청빈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궁핍을 견뎌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곧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연결됨으로써 본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신석구 목사는 이러한 희생과 봉사의 모범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았으며, 겉으로 볼 때는 비록 ‘못난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였다. 즉,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26) 신석구 목사, 『자서전』, 44.

27) 위의 책, “폐회(閉會)하는 즉석(卽席)에서 낙선(落選)되었다는 말을 드르매 큰 죄(罪)나 지은 것 같아서 동서양(東西洋) 사람 수백명(數百名) 몰인 총중(叢中)에서 이 광경(光景)을 당(當)하매 생전(生前)에 처음 보는 부끄러움이다. 폐회(閉會)하고 층계(層階)에 내려올 때에 심중(心中)에 분노(忿怒)가 떠올랐다. 오 -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겠구나.”

28) 위의 책, 64. “이번에 내가 전도사직(傳道師職) 받지 못한 것은 큰 행복(幸福)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感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謙遜)한 마음을 받기를 간구(懇求)하였다. 만일 기시(其時)에 내가 전도사(傳道師) 직분(職分)을 받았던들 나는 꼭 교만(驕慢)한 마음이 나서 하나님 앞에 떠러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잊지 그리 나를 사랑하시는지 참 감사(感謝)하다.”

29) 위의 책, 『자서전』, 84.

오로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지존(至尊)하신 상제(上帝)의 자로 종의 형상(形象)을 취(取)하사 죄인(罪人)들노 더부러 갖치하심은 그러케 아니하시면 그들을 구원(救援)치 못함이다 우리 교역자(教役者)들은 정신을 실현(實現)하여야겠다…(중략)…희생적(犧牲的) 정신(精神)으로 자익(自益)을 원(圓)하는 고군(雇軍)의 마음을 바리고 양(羊)을 위(爲)하여 목슴바리는 목자(牧者)의 마음으로 표간(標竿)을 향(向)하여 질주(疾走)함으로 기독(基督)께서 십자가(十字架)에 피정(被釘)하심을 중인(重人)의 안전(眼前)에 명견(明見)하여야 하겠다.³⁰⁾

경제적 궁핍은 기독교인이 당할 여러 고난 중 하나이다. 특별히 이 경제적 궁핍은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늘 상기시키는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안일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신석구 목사는 자신이 목회직을 통하여 경험하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 희생적 봉사 정신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그는 깨달았다. 즉, 신석구 목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 봉사를 실현하는 데에 있는 것이었다.³¹⁾

이와 같이 신석구 목사에게 있어서, 경제적 궁핍과 능욕, 그리고 박해 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다 잊어버려야 할 대상들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고난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30) 신석구 목사, “犧牲的 奉仕에 있다,” 『기독신보』(1930.1.1)

31) 신석구 목사, “十字架에 대한 명상,” 『신학세계』(1937.3), 37.

5. 자기 부정을 통한 긍정

지금까지 필자는 신석구 목사의 자서전과 설교집을 통하여 그의 윤리관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가 말하는 ‘못난이’라는 뜻의 의미를 살피면서, 자신의 부정이 어떻게 그의 생애 전반에 철저한 ‘회개’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일제의 통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당시 동료 목사들의 친일행보와 비교하면, 그의 이러한 정신은 당시의 무서운 권력을 거스른 보잘 것 없는 용기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두 번의 옥고를 치렀으면서도 노년의 나이에 반공운동의 죄목으로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총살당하게 되었다.

신석구 목사의 삶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그의 ‘자기 부정’이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긍정의 윤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석구 목사의 ‘자기 부정’은 단지 내적인 중생의 체험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족 구국운동’과 ‘교회 일치운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신석구 목사의 구국 정신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본래 그는 독립선언서를 대표하는 민족 대표가 되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는 사천 여 년 간 이어오던 국토를 자신의 때에 잃어버린 것도 통분할 일인데,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힘쓰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구국운동을 위하여 나서기로 결단하게 된다.³²⁾

32) 신석구 목사, 『자서전』, 86-87.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祈禱)하난대 이월 이십칠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드렸다. ‘사천년 전(傳)하

그는 이러한 구국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죄의식을 바탕으로 즉시 뜻을 정하여, 독립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자신이 독립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영웅적 행위가 아닌, 즉, 나라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민족구국운동에는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는 밝혔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이 마치 하나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독립이라는 궁극적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랐다.³³⁾

신석구 목사는 조국이 일제에 의해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조선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 되지 않았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항상 모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하며, 그러한 습관이 정립될 때에, 민족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³⁴⁾ 또한 그는 민족의 구국을 기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해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특히 다니엘과 같은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민족구국의 최우선

여 나랏오던 강토(疆土)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차질 기회에 차져보랏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직각(直刻)에 곳 뜻을 결정하였다.”

33) 위의 책, 87. “그러나 곳 독립(獨立)이 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이 따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칠 터이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국가(國家) 독립(獨立)을 위(爲)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親舊)들 수천(數千) 혹(或) 수백(數百)의 심중(心中)에 민족정신(民族精神)을 심을 것이다. 설혹(設或) 친구(親舊)들 마음에 못심은다 할지라도 내 자식(子息) 삼남매(三男妹) 심중(心中)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獨立)을 위(爲)하여 죽었다는 기억(記憶)을 끼쳐주리니 이만하여도 족(足)하다고 생각(生覺)하였다.”

34) 신석구 목사, “시작하면 끝까지 볼 것,” 『그리스도회보』(1911.9.30), 4.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시여 우리나라의 쇠퇴한 습관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상 말씀한 두 가지를 특별히 주의하심으로 이 회보로 하여금 오렐수록 점점 더 발전되야 보는 사람의게 우습이 되지 안코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본인도 또한 이 회보 보는 사람 중의 일분자(一分子)가 되는 고로 스스로 경계하여 말과 실상이 서로 합치 아님이 업습을 원하옵나이다.

과제임을 분명히 밝혔다.³⁵⁾ 그는 3.1운동 등 민족 구국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취조나 재판 중에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신석구 목사의 이와 같은 민족 구국운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자결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국가의 근본적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하며 통치권을 되찾는 작업 또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는 각 국가가 각기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놀라운 점은 신석구 목사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종교들이 주는 유익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대교나 유교 모두 수천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원리를 세워 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는 이러한 종교들이 특별히 죄와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신석구 목사는 타종교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⁶⁾

35) 신석구 목사, “우리의 罪,” 『신학세계』(1922.5), 45. “오 - 하늘의 아들이 우리의 죄(罪)를 용서(容恕)하시고 우리의 민족(民族)을 구원(救援)하여 주시옵소서. 양춘(陽春)이 복회(復回)하여 만물(萬物)이 발생(發生)하는 이와 여(如)히 우리의 생명(生命)을 갱소(更蘇)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이리(但以理)[다니엘]의 의(義)로움과 갖지 못하오나 구주(救主)의 의(義)로오신 공로(功勞)를 의탁(依託)하여 구(求)하옵나이다. 아멘.”

36) 신석구 목사, “信으로 得救하는 道理를 論함,” 『신학세계』(1917.11), 162-163. “세계(世界)에 확실(確實)히 공인(公認)하는 종교(宗教)에 대(對)하여 상제(上帝)의 오의(奧意)를 감언(敢言)하노니 유대국(猶太國)의 마서(摩西)[모세]율법(律法)이나 동양(東洋)의 유교(儒敎)가 다 천유년(千有年) 혹(或) 누백년(累百年) 전(前)에 시(始)하였던대 기(其)절목(節目)이 각각(各各) 차이(差異)하나 기(其)주

그는 사도 바울이 헬라의 철학이나 유대교 등을 몽학선생(蒙學先生)이라 부른 것처럼, 그 가르침을 통해 인간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시대의 타종교가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계몽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⁷⁾

신석구 목사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모시고 사는 동생’이라 비유하였다.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사명은 아직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지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게 가르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 역할은 인격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역자는 이러한 인격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민족 공동체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³⁸⁾

지(主)로 언(言)하면 다 인(人)으로 역행(力行)할 것을 교시(敎示)하여 만일(萬一) 여차(如此)히 행(行)치 아니하면 죄(罪)됨을 자각(自覺)케 함이오 죄(罪)로 인(因)하여 공의(公儀)의 벌(罰)을 난도(難逃)할 것을 지(知)케 함이오 예수께서 후(後)에 강림(降臨)하사 세인(世人)들이 자기(自己)의 행(行)함으로 구원(救援)을 득(得)치 못하고 죄(罪)의 가치(價値)로 형벌(刑罰)을 미면(未免)할 줄 각오(覺悟)한 자(者)에게 다만 신(信)으로 득구(得救)함을 지(知)케 함이라. 고(故)로 이왕(已往)에는 각국(各國)으로 하여곰 각각(各各) 기도(其道)를 종(從)케 하였으나 금(今)에는 천하(天下) 인간(人間)에 타명(他名)으로 득구(得救)치 못할지라.”

37) 위의 글, 162-163. “연즉(然則) 간략(簡略)히 단언(斷言)컨대 타교(他校)는 인(人)으로 하여곰 죄(罪)를 각(覺)케 하여 예수께서 소개(紹介)하는 몽학선생(蒙學先生)이오 예수는 인(人)을 죄(罪)에서 구원(救援)하시는 진도(眞道)이니 인(人)이 만일(萬一) 죄(罪)를 각오(覺悟)케 한단 도(道)를 종(縱)하여 기(其) 교시(敎示)한 바 마서(摩西)[모세]알 율법책(律法冊)에 기록(記錄)한대로 범사(凡事)를 항상(恒常) 행(行)치 아니하는 자(者)는 저주(咀呪)하는 하(下)에 재(在)하다 함과 공자(孔子)알 죄(罪)를 천(天)에 회(獲)하며 도(禱)할 배 무(無)하다 하는 엄훈(嚴訓)을 신(信)하면 다만 상제(上帝)의 진노(震怒)하시는 하(下)에 재(在)하여 공구전울(恐懼戰慄)할 이사(而已)오 죄(罪)에서 구원(救援)하시는 도(道)를 종(縱)하여 기(其) 교시(敎示)하신 바 아(我)가 의인(義人)을 소(召)하러 래(來)한 것이 아니오 죄인(罪人)을 소(召)하러 래(來)하였노라 하신 복음(福音)을 신(信)하면 평안(平安)함과 소망(所望)이 유(有)하나니 하도(何道)를 종(縱)하겠나뇨.”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한 신석구 목사의 ‘자기 부정’은 결국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풍전 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으며, 이 일을 위하여 타종교 인들과도 협력하였고, 나아가 교회 또한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결국 신석구 목사의 이와 같은 헌신은 교회와 국가의 생명력을 보존하는데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며, 그 힘은 지금의 한국 감리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신석구 목사의 생애를 통하여 ‘못난이’ 윤리라는 관점에서 그의 사상을 재조명하여 보았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이 가벼운 자기 긍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부정’으로 지속되는 신석구 목사의 삶을 통하여, 현대 기독교윤리학이 지향하여야 할 정신적 토대가 됨을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못난이’ 윤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38) 신석구 목사, “基督敎와 使命,” 『宗敎界著名士講演集』(1921), 137-138. “그리스도 교회(敎會)의 첫째가 무엇이나 하면 그리스도올시다., 그리스도가 토대(土臺)가 된 그리스도 교회(敎會)의 둘째가 무엇이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서 가라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이나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兄)님이시오 우리는 다 그의 동생(同生)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형(兄)님에게서 교도(敎導)를 받는 형제자매(兄弟姊妹)라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가 무엇이나 하면 이 세상(世上)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라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동생(同生)이 되지 못하고 방황(彷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라쳐서 그리스도의 동생(同生)되게 하며 가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禮拜)하도록 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즉 그리스도 교회(敎會)의 기초(基礎)요 그리스도 교회가 건설(建設)된 목적(目的)입니다. 또 그리스도 교회(敎會)의 使命인줄노 나는 믿습니다.”

첫째, 신석구 목사는 그의 생애 초기에 기독교를 통하여 자기 긍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기독교를 통한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자기 긍정의 시도는 곧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라는 회개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신석구 목사의 회개는 단지 도덕적 양심의 가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체험 후에도 계속되는 ‘자기 부정’의 단계로 발전하여 나아간다. 즉 ‘자기 부정’이 긍정이 되지 아니하고 더 온전한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체험과 그 고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자기 부정’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 나아가 민족의 절망적인 미래 앞에서도 그 부정의 인식은 계속된다. 즉,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에서 긍정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요청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의 윤리관은 자신과 공동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비록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반복되는 한 ‘못난이’의 가난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의 사명감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의 헌신적인 삶은 민족 구국운동과 이를 위한 종교 간의 연합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석구 목사의 삶은 ‘자기 부정의 길’이었다. 그 부정이 자신에게 긍정으로 돌아오는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긍정이 되며, 자신은 그 은총의 빛에 의지하여 살 수 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 우리가 추구하는 목자상과 진정한 기독교윤리의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잘난이’를 추구하며, 마치 부정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한 나의 긍정이 극대화 되고,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은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부정’의 끝은 철저한 ‘자기 부정’일 뿐이다.

그것은 자기 긍정, 즉, ‘자기의 부정’이 완전하게 극복되는 자기의 절대 긍정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다만 인간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은총이 발견되는 조건은 오로지 지속적인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된다.

신석구 목사는 죽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었던 사람이다.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부족함에서 ‘못난이’됨을 자인하였고, 또한 권력 앞에서 ‘못난이’됨을 자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못난이’의 삶을 자신이 추구하여야 할 신앙의 목표로 삼았다.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의 삶은 현대 기독교에 요청되는 숭고한 정신이자 목표이다. “만일 당신이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If you die before you die, you will not die when you die)”라는 표현처럼, 그는 살아있을 때 죽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신석구 목사의 ‘못난이’ 삶이 이 시대의 기독교윤리의 모형으로 요청되는 것이다.